

제 138호 동기 부여 방법 3. 지식과 배움의 본질에 관한 인식

학습 동기의 유무는 학생이 지식과 배움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Student Motivation and Epistemological Beliefs," Michael B. Paulsen and Kenneth A. Feldman, in Motivation from Within: Approaches for Encouraging Faculty and Students to Excel,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Number 78, Summer 1999, Jossey Bass.)

배움에 대한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학습동기가 없는 학생은:

- 지식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라든지 죽은 '고체 덩어리'라고 인식합니다.
- 벼락공부의 '위력'을 믿으며 공부를 노상 후닥닥합니다.
- 학습 능력은 선천적이며 고정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흔히 공부는 그저 시험 잘 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들은 학점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고 따라서 시험을 치를 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배움을 즐거워하고, 자신감이 많고,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의 경우는 이와 대조적 입니다.

- 지식을 서로 연결되어 복잡하고 변하는 "유기체"라고 인식합니다.
-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것이며 장기전을 치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 능력을 후천적인 노력과 배움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학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따라서 시험이나 퀴즈를 담담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 지식은 결코 간단하거나 완벽하거나 고정되어 있는 양다는 메시지를 준다. 지식이라는 것이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이 변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2. 지식의 연관성을 자주 보여준다. 특히 개념지도를 보여준다 (새시대 교수법 63~4호).
3.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4. 정답이 없는 대신 최선의 답이 있는 문제를 내주어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는 마인드를 가지도록 한다.
5. 가급적 시험 하루 전날 벼락공부해서는 잘 볼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낸다.
6. 중간 고사와 학기말 시험 점수에 치우치지 않고 학기 내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를 점수를 학점에 충분히 반영한다.
7. 차근차근 자신의 실력을 쌓아 가는 학생들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복식형 성적 계산법"을 쓴다 (새시대 교수법, p. 140).

이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지식과 배움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와주시면 그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